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A Man Reaps What He Sows*

갈라디아서 (Galatians) 6:7-10

어느 유명한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입니다.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신문에 내자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the hiring of a new employee in a very famous company. The company advertised in the newspaper and as expected, many people applied for it. There were many qualified applicants; some had academic degrees and others had experience.

회사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회사가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1 차로 선발했습니다. 그 후에는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면접은 사장님이 직접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 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은 사장님이 무엇을 물을까 생각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 예상되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The company reviewed their resumes and those that were qualified were selected for the next step. That next step was an interview with the CEO himself. So the people who passed the first selection process began to prepare themselves to the interview directly with the CEO.

그리고는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이상하고 엉뚱한 면접이 실시된 것입니다. 면접하러 사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So one by one they had their interview. However, there was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After their interviews, most of the applicants had a strange look on their face.

어떤 사람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인즉슨 이 사장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면접 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7 명이 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Some of them shook their heads in disbelief and others made facial expressions that couldn't be understood. The reason for this was because when the applicants came in for their interview, the CEO didn't ask them any questions. A few days later, however, the company announced that seven applicants had been accepted.

떨어진 사람들은 우리는 왜 떨어졌으며 저들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 그리고 면접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Those that were not accepted asked the CEO why they were not accepted and what the standard was for selection. The CEO responded with the following.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자기 일을 찾아 할 줄 알고 성실하게 일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면접하러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휴지통을 놔두었지요. 면접 시험장에 들어오면서 누가 그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고 면접 자리에 앉는가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합격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Our company is looking for faithful people to work here rather than just smart people. I dropped a tissue in front of the entrance. I also put a trash can beside the entrance. Then I watched and saw who was going to stop, pick the tissue up and put it into the trash can before they sat down. And those that did were accepted. Now do you understand?”

7 절 말씀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Verse 7 of our scripture reading says,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The saying, “A man reaps what he sows” is true. Nevertheless people know how they are supposed to live, but most don’t.

그 이유는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 죄와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씨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법이지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게으르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in and greed is inside every person’s mind; but yet they know they should correct it. This Word can be applied to our spiritual life as well. For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faith life, we need to sow the seeds, and water and feed them, to gather an abundant harvest. If we do not do anything for our faith life, we will reap what we have sown.

8 절 말씀에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Verse 8 says,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고 다 영적인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낮이고 밤이고 엎드리면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만 구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형통만 밤낮 부르짖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ost of us pray to God everyday. Just because we pray everyday doesn’t make us spiritual or mean that we will receive eternal life. For example, some people kneel down and pray day and night for only their wealth, health, and business.

물론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의 형통도 간구해야하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보다 더 열심히 간구하고 더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There is nothing wrong with including wealth, health and our business in our prayers. I guess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there is something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of these. Jesus said in the Gospel of Matthew 6:33,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래곤주 유진이라는 마을 회관에는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The Korean War was about to be end and autumn was around the corner. The community center in Eugene, Oregon announced that they would be showing a religious movie. Many people arrived and greeted each other before the movie began.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영화라기 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피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owever, the movie was not a religious movie but rather it was about an orphan from the Korean War. This movie had a very tragic ending and told the people that the orphans need their help.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뭘 좀 할 수는 없겠소?”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That evening, an old farm couple went back home and began talking to each other about the movie. “Honey, I can’t forget about the children even though we are poor farmers. Is there anything we can do for them?” They really wanted to help them but it was beyond their ability.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 해도 그 영화는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전쟁고아들이 눈에 아른 거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점점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명과도 같은 땅을 팔아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Nevertheless, they never forgot about the orphans in the movie. The children’s image still flickered before their eyes and the thought that they wanted to help them came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 Finally, they sold their properties which was their livelihood and visited Korea.

가보니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After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s in very poor condition. There were countless war orphans in Korea just as was depicted in the movie. So this old couple brought eight mixed-blood war orphans back to America.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전쟁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것입니다.

Once this had been announced in the local newspaper, many organizations wanted to help this old couple. As support came from many organizations, the old couple established an organization for the war orphans. That organization is known as the 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

올해로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은 벌써 창립 50 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 이 홀트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만 심은 것뿐인데 때가 이르매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 절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실망도 포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다 보면 복을 거두어들일 날이 올 것입니다.” This year is the 50th anniversary of Holt International. This old couple just planted good seeds but the seeds have grown into a good fruit called, “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 in God's time. Verse 9 says to us, “And let us not get tired of doing what is right, for after a while we will reap a harvest of blessing if we don't get discouraged and give up.”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무슨 씨를 심으며 살아왔는가? 만일 오늘에 와서 내가 형편없는 것을 거두게 되었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전에 내가 그런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let's think about ourselves. What kind of seeds have we planted? If we reap worthless and corrupt fruits today, that is because we sowed worthless and corrupt seeds earlier. We must genuinely realize what kind of fruits we are reaping.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 그 결과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Galatians says,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from that nature will reap destruction;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예화 하나를 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I am going to finish my sermon with this story.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여인은 시장에 가게 됐는데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A lady dreamed a dream. In the dream, she went to the market and entered a newly opened store. But the store owner was God.

이 여인은 주인에게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냐고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 한참을 생각하다가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The lady asked God, “What are you selling here?” The store owner said, “We are selling everything you want.” This lady was surprised at his answer and told him she had a great idea.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미소를 지으면 말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Please give me peace, love, happiness, wisdom and freedom from fear.” Then the store owner responded to her with a smile. “I am sorry. You came to wrong place. This store does not sell fruits, but only seeds.”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씨앗이 우리 맘에 심기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면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When we confess Jesus Christ as our Savior, the seeds of peace, love, happiness, wisdom and freedom from fear are sown in our minds. As we walk with Jesus Christ throughout our lives, these seeds will bud and bear abundant fruit.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좋은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 행복, 자비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pray that you may live with peace, love, happiness and mercy by these seeds given to us by Jesus Christ our Lord.